

2013 가을 이야기 vol.171
www.holt.or.kr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홀트소식



가을 이야기

한 층의 재로 변해버린 집을 멩하니 바라보던 까니까.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불을 지핀 것이 화재로 번졌습니다. 웅크렸던 마음으로 보낸 하루하루.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은빛 집이 지어지자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7p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1호·계간 **발행일** | 2013년 9월 13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홍미경(홍보팀장), 신미숙(후원팀장), 성경혜(아동양육팀장), 이수연(국내입양팀장), 김재현(하남시복지관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 이혜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봉우 이사(HICS 수석교수)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동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전주영아원 T.063)222-1559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사랑들 www.holtlove.or.kr T.053)756-0184
아름들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들·아침들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T.02)322-3325
대전클로버 T.042)583-4006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미국인 해리 홀트 씨의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입양을 통해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일로서 홀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시설,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특수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등을 꾸준히 운영할 것이며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인 해리 홀트 씨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다 열악한 환경에 속해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전 세계의 아동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3년 전부터는 캄보디아에 방과 후 교실 및 분유지원 사업 등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몽골에 저소득층 아동결연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지역조사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아동결연사업의 목적은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 다음 세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트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님의 사랑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 입양을 통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오해로 후원의 손길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양법의 개정 등으로 아동 입양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져 아동 입양으로는 홀트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부족,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특히 해외원조사업은 100%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해외원조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후원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홀트는 설립 배경이 기독교의 영성 위에 세워진 기관임에도 교계로부터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홀트는 교계의 어른을 찾아 뵙고,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교계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홀트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며 세계 곳곳에서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 드림



공개입양 1세대 홀트한사랑회 주니어들은 성장 중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족 자조모임 '홀트한사랑회' 자녀들 중 초등학교생으로 구성된, 일명 '홀트한사랑회 주니어들'이 8월 19일~20일 '캠프'라는 이름하에 모였다. 공개입양이란 단어가 아직 낯설던 2004년 12월, 10가정 남짓으로 출발한 홀트한사랑회는 이제 전국 250여 가정으로 확대되었고, 입양자녀들은 어느새 커서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이해하고 싶다며 미혼모자시설도 찾고 입양에 대해 진지한 논의도 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나름 공개입양 1세대라는 타이틀을 지닌 홀트한사랑회 주니어들, 유소년 캠프 속 하루를 통해 주니어들이 생각하는 입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생모 이해하기

“지금은 여러분이 입양될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져서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미혼 여성이 혼자 아기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벅차요. 그리고...”

미혼모자시설 아를들을 방문한 11명의 아이들은 10여 년 전 입양법과 현재 입양법의 차이, 미혼모들의 생활상과 고민, 그리고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할 때의 마음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에도 잘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를 막상 혼자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 가장 컸는지, 입양을 선택하는 이유와 혹 입양 보낸 아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있으신지, 그때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미혼모들과 만나는 자리, 한 아이가 질문을 던지자 미혼모들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입양에 대해 배우고 단련되어서인지 담담한 아이들보다 미혼모들이 더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듯 보였다. 얼마 전 출산했다는 한 산모는 “아이를 낳았을 때 책임감으로 잘 키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다”는 답변만 남기고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한사랑회 주니어들은 그 한 마디 말에서 충분한 답을 찾은 듯 보였다.

입양을 포용하며 높아진 자존감

“제 아이의 경우 미혼모시설을 방문하고 난 이후 낳아주신 생모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양을 보낸 건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자존감이 향상되는 걸 봤어요.”

두 딸을 입양한 어머니이자 한사랑회 유소년캠프 담당자로 3년간 활동한 김인순 씨는 입양아들이 미혼모들을 만나고 입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저는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미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마 생모가 태교를 잘해서인

것 같아요.” 아를들 산모들을 위한 선물로 태교 CD도 사고, 예쁜 카드에 메시지도 남길 만큼 홀트한사랑회 주니어들은 건강한 입양 정체성을 쭉쭉 키우고 있었다.

한사랑회 주니어들과의 입양 수다

물놀이로 막바지 더위를 날리고 맛난 바비큐를 먹고 나니 어느새 어둠 내리는 저녁이 다가왔다. 오늘 하루를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제법 연장자(?)에 속하는 초등학교 4~5학년 6명과 텐트 속 밀담(?)을 나누었다.

“너희가 볼 때 아이들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니?”

“일찍이요!” 모두가 합창하듯 말한다.

“저희처럼 일찍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면 더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는 엄마가 최근에 알려줘서 며칠을 울었대요.”

영서(11)를 비롯해 아이들은 입양을 일찍 알려주는 게 더 좋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입양’이란 단어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 인식도 안 된다고 했다. 윤정이(12)와 다녕(11)이의 경우는 엄마가 학교에서 ‘입양 판권견 교육’을 펼친 적도 있어 다수의 친구들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고.

“입양을 가르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마 저희 학교 친구들은 제가 입양된 걸 다 알고 있을걸요?” 다녕이가 웃으면서 말하자 친구들도 “진짜진짜” 동조하며 천진한 수다를 나눈다.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사준다고?

아이들에게 ‘입양’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말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녕이는 “입양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어 영서가 “주워왔다는 말이에요”, 수아(11)가 “입양했다는 편견 어린 말이에요”라 덧붙인다. 또 고은이(11)의 “고아라는 말이요”라는 말에 이어 혜련이(10)가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요!”라 말하자 6명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맞아!” 하며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1 미혼모자시설 아픔들을 방문한 홀트한사랑회 주니어들. 2 환히 웃고 있는 아이들 모습. 3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4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유소년캠프 자원봉사자 겸 응원단 부모님들.

“내가 우리 엄마가 뭐 안 사줬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친엄마가 아니니까 잘 안 챙겨주지’라는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의 이 불멘소리가 맞다면 과연 친엄마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이들에게 전이되는 것 같아 한사랑회 주니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근데 입양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도 입양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해요.”

“저도 입양의 날이나 여러 행사에 참여할 때면 친구들이 ‘너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많다며 부러워해요!’

자기들끼리 키득대며 한참을 말하는 아이들. 잘 컸구나, 잘 크고 있구나 싶어 벽찬 가슴을 느끼게 해주는 한사랑회 주니어들이었다.

우리끼리 있으면 육아 문제, 남이 보면 입양가족 문제

입양부모들은 입양자녀들에게 또래 모임이 필요한 이유를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교 친구도, 동네 친구도 있지만 막상 친구들과 엄마 흉이라도 몰라치면 ‘가짜 엄마여서 그렇다’는, ‘친엄마가 아니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기 심상이예요. 우리가 아이들과의 갈등이나 사소한 말다툼을 이야기해도 ‘입양이라 그렇다’며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것처럼요. 그러니 어디 마음 놓고 부모 흉이나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입양가족끼리 있으면 육아 문제인데 왜 남이 들으면 갑자기 입양가족, 입양아 문제가 돼버리죠.”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편견은 변종처럼 없어졌다 생각하면 나타나고, 지워졌다 생각하면 다시 등장하는 모습 ‘생각별레?’ 같다고 느껴졌다.

“우리 엄마는 착한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해요! 우리 아빠는 딸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우리 아빠는 웃겨요. 우리 아빠는 내 편만 드는 딸바보예요.”

한사랑회 주니어들이 부모에 대해 웃으며 신나게 떠들며 말하는 걸 보니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들은 완벽한 가족’이니까! 아이들의 10년 후가 기다려졌다.

글 _ 김은희 · 홍보팀



한국 후원자가 만들어준 까니까의 은빛 하우스

까니까의 부모님이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나무 몇 개, 양철 조금으로 지어진 허술했지만 그래도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 그곳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차마 뱉지 못하고 삼켰던 눈물이 한국 후원자들이 지어준 새 집을 보자 터져버렸습니다.

평온한 마을에 까맣게 피어오른 연기

평소처럼 홀트드림센터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조용하고 평온한 7월 11일 오후, 갑자기 트라피앙 안찬마을 외곽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부랴부랴 뛰어가 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홀트드림센터에 다니는 까니까(10)의 집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까니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까니까는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1 화재로 불탄 집. 2 새집에서 까니까(왼쪽) 가족.



3 집 내부 전경. 4 이웃들이 전달한 세간살림. 5 공사장을 놀이터 삼아 노는 아이들.

미동도 없이 그저 놀란 눈으로 울고 있는 두 동생을 안고 어른들의 방화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진화하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노력했지만 점점 연기를 피워올리던 성난 불은 옆집까지 집어삼키고서야 멈추었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타버린 보금자리

까니까는 3녀 중 장녀로 부모님,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으로,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다 보니 멀리 시골에 살던 이모가 잠시 까니까 형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날, 까니까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7시 등굣길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날은 이모가 시골에 잠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집에 남겨진 두 동생 걱정에 까니까는 학교 수업만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홀트드림센터의 급식과 방과 후 수업은 까니까의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이지만, 동생들을 위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늦은 오후 동생들이 배가 고프다며 칭얼댔습니다. 동생들을 달래며 부모님이 오시는 저녁까지 참아보려 했지만 아침식사도 적었던 터라 동생들은 자꾸 까니까에게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까니까는 동생들을 위해 쌀이라도 끓여보려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 나무와 양철로 만들어진 집이 삼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까니까는 너무 놀라 집 앞에서 놀던 동생들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이웃의 도움

을 청하고 물을 날라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소방도구도 없다 보니 활활 타는 불길을 막을 길도 없었고 장작 같은 집은 금세 타들어갔습니다. 까니까는 동생들을 안고 멍하니 눈앞의 상황을 지켜보지만 합니다.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서입니다.

도시개발로 쫓겨나듯 이주해 집이라고 말할 만큼 변변치는 못했으나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을 뵙자 까니까는 눈물이 울컥 쏟아집니다. 동생들도 다시 덩달아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도 얼마 전의 까니까와 같이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저 놀란 눈으로 울고 있는 세 자녀를 안고 재로 변해버린 집을 멍하니 쳐다보지만 합니다.

한 달 열흘 참았던 눈물, “감사합니다”

다음 날, 쌀을 사들고 까니까네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타버린 집터 옆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간이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6명 가족은 노숙 아닌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웃가지며, 쌀 한 줌, 식기 등을 조금씩 모아 나눠주고 가는 게 아납니까! 이웃들 또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까니까네를 돕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해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와 연결해 빠르게 지원을 요청했고 까니까 가족을 위한 후원 모금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노숙을 할 경우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후원자님들이 캄보디아 까니까네 가족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모아준 결과 8월 17일 토요일, 작지만 나눔이 가득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화재

로 집을 잃은 지 한 달 열흘, 까니까 가족에게 다시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아줄 집이 생겼습니다. 새 집을 보자 까니까의 부모님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으며, 절대 잊지 못할 도움이라며,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요.

다시 찾은 웃음 그리고 꿈

집이 지어지는 과정이 신기한 듯 까니까와 동생들은 공사장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뛰어놀다가도 다시 집을 쳐다보고 웃습니다. 화재로 마을 즐었던 까니까의 표정도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까니까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땅만 바라보던 아이는 “엄마와 같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안 된다!”고 하자 이내 까니까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잠시지만 어린 까니까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어린 동생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과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 중 어느 것을 꿈이라 말해야 할지요.

어머니의 호통 아닌 호통과 지지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까니까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너 공부 잘해?” 그럼 까니까는 대답합니다. “네, 열심히 해요.” 그러곤 저도, 까니까도 웃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의 십시일반 나눔으로 한 아이는 웃음과 꿈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까니까의 웃음과 행복한 미소를 대신해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_ 이태경 센터장 · 홀트드림센터

1 7월 12일 화재로 불탄 까니까네 집. 2 8월 14일 홀트드림센터 화재 현장이 말끔히 치워졌네요. 3 8월 15일 집짓기 시작인 골조가 세워졌습니다. 4 8월 15일 파란 하늘의 솟털구름처럼 까니까의 새로운 희망도 뭉글뭉글 솟아오르기를... 5 8월 16일 가름과 우기로부터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집을 2층으로 올립니다. 6 8월 17일 짜잔~ 아직 손볼 곳이 많지만 1주일 만에 검은 재였던 집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네요.



사랑과 응원으로 키우는 희망의 가능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성인에게 주로 나타날 것 같은 이 병이 어린 정민이를 괴롭히는 이유였다. 이 뜨거운 여름내, 잘 버티고 잘 따라와주는 12개월 정민이의 노력과 인내심이 기특하고 고맙다.



세상에 일찍 온 만큼 친모와 더 일찍 떨어진 아이

정민이(가명, 12개월)는 여느 아기들보다 10주나 빨리 세상에 태어났다. 태내의 하루는 태아에게 그냥 24시간이 아닐 것이다. 태아의 뇌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서서히 해야 하는 그때 정민이는 불쑥 세상에 나왔다. 아마 미혼모였던 생모는 힘든 여건 속에서 조산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거나, 당시 겪고 있던 여러 어려움 등이 조산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너무도 작게 태어난 아이를 보며 얼마나 미안하고 아팠을까. 두 손으로 감싸일 만큼 작은 정민이는 지난해 한여름 태어났다.

아이는 출생 후 2주간 입원해 미숙아저체중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몸무게가 조금 회복되나 싶을 때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영아 내사시로 진단받아 생후 120일 즈음 수술도 받았다. 이렇듯 시작부터 정민이는 병원에 머무는 일이 많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온 발달지체

팔에 단단한 팔 보호대(Elbow Splint)를 착용하고 까치발로 힘겹게 서 있는 정민이가 눈에 보였다. 정민이는 돌이 되었는데도 기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단다. 발달이 7개월 정도에 머물고 있어 팔, 다리에 힘을 길러주고 뻗뻗해진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정민아 팔 다리를 뻗어 디디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 그럼 돼!’라고 말하면 쉽게 해낼 것 같은 간단해 보이는 것도 어린 아기들한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인 것이다.

정민이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갖고 태어났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이 체내에 부족한 것으로 성인의 경우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체중 증가, 생리주기 불순, 심혈관계 합병증 등으로 나타나지만 소아의 경우는 정신지체 및 작은 키의 원인이 되며 이미 지능이 떨어진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어도 지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아이들 성장에 치명적 오류를 줄 수 있는 장애다. 그래서 정민이의 경우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혈액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며 조절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이 약은 정민이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살아가는 동안 평생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민이는 현재 이 병으로 인해 발달지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달지체보다 정민이를 더 괴롭히는 게 있으니, 바로 ‘변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생긴 변비는 정민이를 울리고 지치게 만들고 있다.

“변을 볼 때 얼마나 아파하는지 온 얼굴이 괴롭다고 말하는 거 같아서 안쓰럽죠. 좌변기 자세를 해주야 변을 보기 쉽다고 해서 잠이주지만 아파서 눈물을 푹푹 흘리며 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정말 같이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홍미자 위탁어머니는 정민이가 변을 볼 때마다 초긴장 상태였다. 지금은 관장과 약으로 조금씩 수월해지고 있지만 자꾸 약에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 위탁어머니는 매일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이고 장 마사지도 열심히 해주고 있다. 그나마 최근 위안이 되는 건 물리치료 후 단단했던 팔 다리가 유연해지고 무릎으로 기어보러 자세도 잡는다는 것. 불뼉터위라고 할 만큼 뜨거웠던 올 여름, 정민이가 구슬땀을 흘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 기특하고 대견할 뿐이다.

그래도 가능성이 희망이다

영화 주인공 해리포터를 닮은 듯 둥그란 안경이 무척 잘 어울리는 정민이. 하지만 이 안경도 사시 교정을 위해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왼쪽 안구에 사시가 남아 있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없어 다시 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 아닌가 싶다. 치료가 기대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도움에 따라 나날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하고 기뻐다.

“처음 만났을 때는 웃음도 없는데다 나를 쳐다보는 건지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마도 잘 찾고 어찌나 활발하게 움직이며 해맑게 웃는지, 볼 때마다 ‘우리 아들 잘한다’고 응원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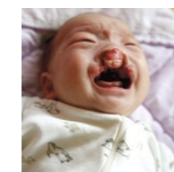
위탁어머니의 말씀처럼 정말 엄마의 응원이 정민이를 일으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은 사랑이 아닌가.

‘가능성이 희망이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정민이가 받은 사랑만큼 자라주길 기대해본다. 아니 기대해보고 싶다. 정민이가 두 발로 서서 한 발 때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온몸에 느껴지는 전율처럼, 곧 그날이 오리라 믿는다. **holt**

글 _ 박혜연 · 홍보팀



1, 2 웃다가도 물리치료만 시작되면 정민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하늘이는

특수젖병을 사용하지만 구순열 수술로 인해 먹는 것이 편해졌으며, 문제가 있었던 아킬레스건도 수술해 현재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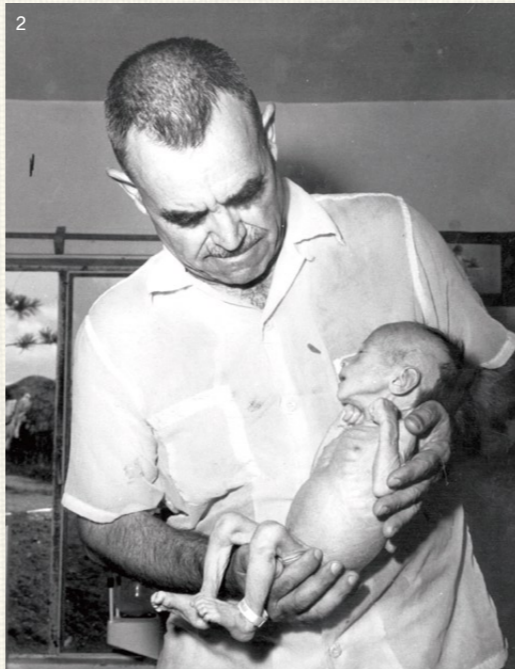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www.holt.or.kr

기업은행 048-036405-04-014



1 한국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홀트가족 1 말리 홀트 현 이사장. 2 아버지故 해리 홀트. 3 어머니故 버다 홀트.

세상에 남기고 갈 건, 웃 몇 벌과 책 몇 권...

올해로 78세인 말리 홀트 이사장, 자원봉사로 시작한 한국생활이 어느덧 57년이 되어갑니다. 한국아동 후원자였던 아버지 해리 홀트 씨가 직접 터를 닦고 세운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인을 돌보며 지금껏 봉사를 펼쳐온 말리 홀트 이사장. 올초 골수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지만 늘 장애인 가족들의 걱정을 놓지 못하는 말리 이사장을 조선일보 감혜림 기자가 만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봉사로 헌신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발의 영락없는 우리네 할머니 모습, 말리 홀트 이사장

홀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들던 이름입니다. 꺾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전쟁, 국외 입양, 배고프던 시절과 같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초년병 기자로 홀트아동복지회를 취재하면서야 홀트가 설립자의 성씨라는 것과 이 시대에 아직도 홀트란 이름이 '다른 의미'로 견재하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런 상징성 때문에 말리 홀트 이사장 인터뷰를 추진했습니다. 기자들 말로 "홀트가(家) 딸이 아직도 활동한다는 데 적어도 한 귀퉁이는 쓸 수 있지 않겠어?"라는 알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를 이어 '이사장'이란 직함만 유지하겠거니 싶기도 했고요.

인터뷰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6월 인터뷰 요청 시 이사장님이 암 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답변을 기다는 동안 홀트와 관련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의 부모인 해리 홀트, 버다 홀트 부부가 1955년 한국 혼혈 아동 8명을 입양했고, 둘째 딸 홀트 이사장님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 와 반 세기 넘게 살면서 고아나 기아, 장애인을 돌봤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50여 년 동안 이사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던 것은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지냈다는 것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건강을 조금 회복한 이사장님을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있는 '말리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 백발의 이사장님은 영락없는 우리네 할머니 같았습니다.

반세기 넘게 대이어 53년간 봉사

감혜림 기자(이하 감) |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말리 홀트 이사장(이하 말리) | 스무 살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동생들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956년, 부모님은 버려진 많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홀트씨해외양자회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당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던 저도 두 분을 돕기 위해 함께 왔어요.

감 | 한국에 와서 부모님이 8명의 동생을 입양하셨더라고요.

말리 | 당시 부모님 사업이 잘 돼서 나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집에 남는 방도 5개쯤 있어서 8명이 함께 지낼 공간이 충분했어요. 남자 넷, 여자 넷, 늘 왈카지껄한 8남매 덕분에 마음이 풍성했죠.

감 | 입양된 한국 동생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말리 |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웃음). 그중 남동생 3명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나다니엘은 열여덟 살 때 하와이에서 의사했고, 풀은 올해 초 간질환으로 죽었죠. 조셉은 알코올중독에 시달리다가 서

른두 살의 나이로 자살, 생을 마감했어요. 조셉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답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자식을 낳고, 손자도 있어요. 헬렌은 미국 오리건대학교 교직원으로 지내고 있고, 메리는 간호사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막내 베티는 필리핀 출신 아이 2명을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홀트 이사장님은 자살한 동생 이야기를 담담히 꺼냈습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질문은 빼달라"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녀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질문도 던졌습니다.

"입양 때문에 불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닐까요?"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나머지 한국 동생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했어요.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나 가족들이 사랑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조셉은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친부모와 함께 살아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적이 달라도 가족이 있는 게 낫다

감 | 후원금만 내도 충분한 텐데 부모님이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말리 | 1950년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몇 년 뒤 6·25전쟁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굶어 죽는 전쟁고아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때 '가난과 고아라는 좌절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자'는 결심을 한 거예요. 후원은 일시적이지만 가족은 영원하잖아요.

감 | 그런데 부모님은 왜 혼혈아를 입양하셨을까요?

말리 | 당시 한국에서는 혼혈 아동들이 '튀기'라 불리면서 차별을 심하게 당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직접 혼혈 아이들을 만난 아버지는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여자아이, 굶어서 곧 죽게 된 여자아이를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싶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미국에 돌아가 그의 가족들과 편안히 살고 있으리라 짐작되요. 그들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오'라고 쓸 정도였어요.

감 | 부모님이 타국에서 전 재산을 한국 복지사업에 쏟아 부었으니 원망스럽기도 했을 텐데요.

말리 | 그런 욕심은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당신이 죽어도 돈은 물려주지 않을 거라며, 공부하고 싶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야 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 복지사업에 돈을 쓰시는 건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감 | '고아 수출'이나 '아기 파는 사업' 등 국외 입양의 좋지 않은



4 간호사 봉사시절 5 골수암 투병 중 언니 간병을 맡아준 동생 린다와 함께 6 2011년 캄보디아 아동들과 함께 7 칠순을 맞아 홀트일산복지타운 '영혼의 소리' 합창단과 함께.



말리 언니는 내게 엄마 같은 존재
- 헬렌 천 홀트(14개월에 홀트가 입양)

나이 차이가 스무 살 가까이 나는 말리 언니는 내게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이 고향인 말리 언니는 한국에 있어 자주 보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메일이나 전화를 자주 해요. 말리 언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어떤 책임을 맡았는지 알기에 무척 자랑스러워요.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리 | 가끔 파악되거나 스스로 불행했다고 하는 입양인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국외 입양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국적이 달라도 가족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닐까요.

감 | 57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말리 |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산에 있는 영아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꼭 하루에 한 명씩 버려진 아이들이 들어왔고 또 한 명씩 죽어나갔어요. 작은 무덤이 수십 개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참 많이 울었죠.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분유 아끼려고 분유 한 컵에 물을 열 컵씩 부어서 먹일 때니까 빼빼 마른 아이들이 많았죠. 국외 입양이 안 되면 굶어 죽었을 정도였어요.

감 | 입양사업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비난을 받으셨다고요.

말리 |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데려와 미국을 더럽힌다' 하고, 한국에서는 '아무데나 데려가서 일꾼으로 쓴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 이유로 1957년부터는 미국에서 입양가족 야우회를 열고, 1970년부터 모국 방문 행사를 만들었어요.

남길 것은 책 몇 권과 옷 서너 벌

이사장님을 만나러 홀트일산복지타운에 갔을 때 한국에도 이런 복지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입양을 기다리거나

위탁 보호하는 장애인 270여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홀트가 입양만 하는 줄 아는데 장애인을 돌보는 일도 오래 전부터 했다"며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들고, 입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국내 입양도 늘었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여전히 국내에선 입양이 잘 안 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반면 "얼굴이 흉하거나 장애가 심해서 입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서 사랑받은 아이들을 보면 참 기뻐요"라며 뇌성마비, 신체기형 등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입양 사례를 말씀하실 땐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 중에 나는 왜 어릴 때 입양이 안 됐냐며 우는 아이도 있는데, 그럴 땐 가슴 아프죠"라는 이사장님. 당신 몸을 챙기기도 버거울 텐데 그 외중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감 | 암 진단을 받고 생활에 변화가 있었나요?

말리 |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대신 제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말리의 집'에 같이 살던 원생들은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혼자 살게 되니 많이 허전하네요.

감 | 암 진단을 받고 '왜 내게 병을 주셨나' 하는 원망은 안 생기던가요?

말리 |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 종교가 있으니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잘 인도해주시겠죠. 그리고 컨디션만 좋으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감 | 돌아가신 뒤에 남길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리 | 이곳은 내 소유가 아니고 물건도 남길 게 별로 없어요. 옷 몇 벌이랑 책 몇 권 정도. 그나마도 누가 쓸 만한 물건은 없어요. 처음 한국 올 때 갖고 온 가방은 너무 낡아서 버렸고, 홀트에 남아 있던 사진 자료도 얼마 전에 국가에 다 기증했죠.

이사장님이 사는 공간(20만㎡(6만 평) 규모의 복지타운에서 말리의 집은 66㎡(20평)은 아담했고 살림도 단출해 보였습니다. 1964년과 2000년에 작고한 아버지와 어머니 유해는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묻혀 있고, 이사장님도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사장님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홀트 출신 장애인들이 살 집을 짓는 것. 얼마 전에 부지와 비용은 일부 마련했지만 이사장님의 건강이 나빠져 진행을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만 장애인에게 맞도록 지어진 집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도 평생 장애인을 위한 집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도 어서 건강해져서 꼭 좋은 집을 지을 겁니다."

곧 여든이 되는 노인의 꿈은 아직도 청춘이었습니다. **한**

글 _ 조선일보 김혜림 기자
(본 인터뷰는 2013년 8월 17, 18일 조선일보 토일섹션 WHY에도 게재됨)



나눔을 동행 삼아 완주한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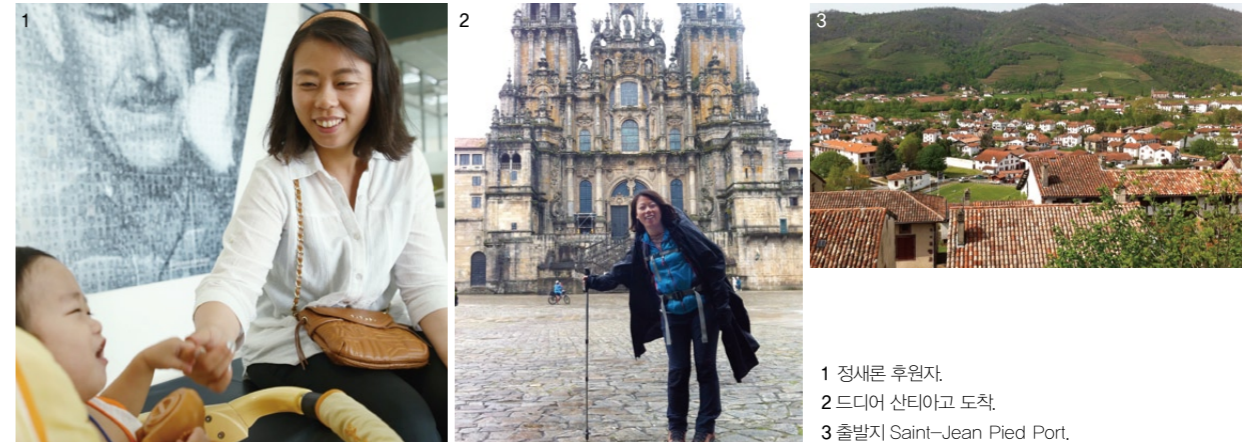
10년 동안 한 달도 거름 없이 후원을 해온 정새론 후원자가 51인과 함께 새로운 나눔을 펼쳤습니다. 버킷 리스트였던 스페인 순례길 산티아고 가는 길(까미노 데 산티아고) 800km를 4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완주하며 '나눔'을 약속한 것. 47일의 여정 동안 물집과 통증을 견디고 외로움을 참아가며 완주에 성공했고, 그 결과 후원 약정금은 차곡차곡 쌓여 무려 275만 원이 모였습니다. "치유와 회복, 나눔이 목적이었던 800km는 가진 것의 소중함,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감사'와 '겸손'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우연히 한 책을 보면서 산티아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산티아고 순례를 버킷 리스트에 넣었죠.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Camino de Santiago, 영어로는 Roads to Santiago며 '길'이란 뜻의 까미노를 고유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묻혀 있다고 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걸어가는 길, 중세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목숨 걸고 걸었다는 이 길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세계 3대 성지 중 하나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순례자와 지역 주민들의 나눔을 경험하는 멋진 길이어서 저도 이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었어요.

블로그 이름이 '꿈꾸는 론 쌤의 나눔의 까미노'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느껴지는데요

제가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제 이름의 끝자리를 따서 '론 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나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걷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교사 시절 몸담았던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3박 4일로 지리산을 종주하고, 그걸 응원하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종주에 성공하면 저소득 아동들의 여행비를 기부하는 일을 몇 년째 해왔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무척 기특했고, 아이들에게 받은 그 감동을 저도 선생님으로서 릴레이처럼 사랑으로 실천하자고 다짐했었어요. 이번 산티아고가 그 길이 된 거죠.



1 정새론 후원자.
2 드디어 산티아고 도착.
3 출발지 Saint-Jean Pied Port.

나눔과 동행해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800km,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작한 후 30km에 다다랐을 때는 온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났어요. 블로그에는 당시 상황을 재미있게 썼지만 발바닥에 작은 돌까지도 느껴질 만큼 온몸의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여기가 어디야~" "배고프다" "얼마나 남았지?" 등... 누가 들으면 정신이 이상하다 할 만큼요.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이 생각났어요. 제가 800km를 완주할 거라 믿고 약정해주셨던 분들과의 약속. 그리고 이 후원금으로 어찌면 새 삶을 얻게 될지도 모를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약속. 저를 지켜봐준 51명과의 약속이 800km를 넘어 120km를 더 걸게 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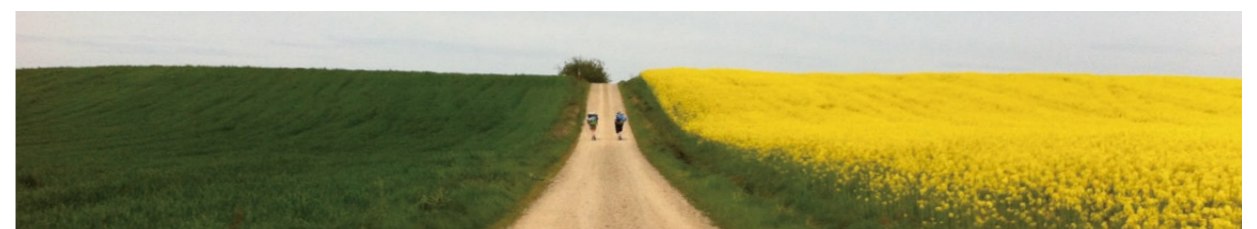
이번 산티아고 나눔 길을 계획하면서 홀트아동복지회가 떠올랐다고 말씀하셨지요?

10여 년 전 첫 직업을 가졌을 때 제 멘토이던 목사님이 '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30분의 1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저도 후원을 해야겠다 결심했고, 아

버지게 홀트아동복지회를 추천받았어요. 마침 저도 '언젠가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기에 홀트로 후원 기관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순례길을 계획하고 나눔을 생각하면서도 홀트아동복지회가 떠올랐어요. 산티아고 여정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몇 분이 '순례길에서 입양인을 만났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정을 가질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를 비롯해 함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은 단 하나, 이 땅의 어린이들과 세상의 어린이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가정의 안정된 틀 안에서 사랑받고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Holt](#)

· 참여해주신 51명의 후원자 ·

지저스피플, 박정선, 김성완, 이슬기, 김민건, 이찬영 가족, 구본순 가족, 남궁선, 백정숙, 서은선, 고혜정, 한동훈 가족, 김명련, 신성애, 김선경, 이진영, 김진환 가족, 차은우 가족, 정주재, 이정숙, 김연경, 장하임, 김자윤, 김연경 가족, 이정은, 탁시원 가족, 이채원 가족, 이유송, 이유진, 김지혜, 홍순희, 박진양 가족, 이해리, 신승윤, 임천석, 차영근 가족, 김하나, 이상미, 유영화, 정새론, 김제동, 최용준, 허연, 김경민, 정고은, 이범균, 김현정, 이연우, 이선우, 이은우, 이하은



스타들의 '햇'하고 '빛'나는 러브 도네이션

'꽃어오르는 가미솔 더위'라고 불렀던 여름 초입 6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스타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나눔 현장이 펼쳐졌다. 나눔이어서 즐거웠고 스타가 함께해서 더 행복했던 현장 스케치 다시 보기!



스타들의 애장품을 경매합니다! 스타 도네이션

걸그룹, 보이그룹으로 유명한 소녀시대, 씨스타, 시크릿, 샤이니, 틴탑 등 가요계 톱스타들이 자선경매를 위한 소장품을 내놓았다. 소녀시대 티파니는 소녀시대 DVD를, 씨니는 텀블러를, 샤이니 민호와 키는 포스터퍼즐세트와 텀블러를, 씨스타는 사인CD와 함께 다솜이 기증한 운동화를, 씨크릿 전효성·송지은·한선화·정하나는 팔찌와 귀걸이를, 틴탑의 캡·니엘·리키·엘조·창조·천지는 팔찌와 목걸이, 그리고 스카프를 기증했다.

이름만 들어도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스타들이 소장품을 내놓은 이유는 바로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서였다. 동아닷컴 주최

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연 이번 '스타도네이션'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아닷컴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틴탑 멤버 리키가 기증한 팔찌가 약 70만 원 최고가에 낙찰되는 등 총 337만 9,000 원이 모금됐다.

참여한 스타들은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다문화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릴 수 있어 보람 있고 행복해요!"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스타 도네이션'은 많은 분들이 함께해준 '러브 도네이션'으로 빛을 더했다.

송재호 홍보대사와 함께한 엔젤트리 나눔 현장

"내가 도움이 된다면야 어디든 가지요"라 말씀하시며 인심 좋은 할아버지 미소를 지으시는 송재호 홍보대사. 자택이 경기도라 교통대란을 피하고자 늘 새벽같이, 직원보다 일찍 출근(?)해 직원들을 민망하게 할 만큼 매순간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감사한 분이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견본주택에서 연 '따뜻한 기부' 자리에도 송재호 홍보대사가 함께했다. 이 행사는 6월 21일부터 3일간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이 기부쿠폰 '나눔의 잎새'를 엔젤트리에 달아준 만큼 두 건설사가 기부하는 것으로, 송재호 홍보대사도 참여, 엔젤트리에 잎새를 걸고 오신 분들께 사인도 해주며 동참을 권유했다. 그 결과 한 장에 1,000원을 기부하는 작은 잎새의 힘이 모이고 모여 2,000만 원이 모금되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정말 많은 기부금이 모인 현장이었다. 이번 엔젤트리 기부행사는 장소부터 선택됐다. 모델하우스 분양행사에 더해진 나눔 행사라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이번 행사를 기획한 오현승 차장님은 "이번 아파트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콘셉트에 맞게 건설된 만큼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과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딱'이란 생각이 들었다. 낯선 이도 이웃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눔의 어메이징한 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키다리아저씨 개그맨 김인석과 함께한 도서 바자회

2008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첫 만남을 가진 개그맨 김인석 씨. 그는 연예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두 팔을 걷어부친 채 복지관 곳곳을 누비며 일을 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갔다. 알고 보니 그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를 위해 정기후원을 하고 있었으며, 그 아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또한 누구보다 옆에서 장애인들의 힘든 상황을 지켜본 덕분에 지금까지도 후원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준다.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인터넷 서점 yes24의 후원으로 펼쳐진 '사랑의 도서 바자회'에도 마찬가지로. 동료 개그맨 박휘순, 박나래, 윤성호, 장도연 씨 등을 봉사자로 섭외(?)해 8,000여 권의 도서를 판매하는 데 일등공신이 돼주었다. 주민들의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 요청에 연응대하면서도 '책 한 권 더!'를 유쾌하게 외치던 그 덕분에 도서 바자회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함께해서 기분 좋은 나눔, 옆에 있어 든든한 이웃들. 김인석 씨와 동료 개그맨들이 선사해준 '행복'이었다. **HiTT**

1 송재호 홍보대사와 함께한 엔젤트리 나눔현장. 2, 3 yes24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성호 씨와 김인석 씨.



아프고 슬퍼도, 그녀의 이름은 '엄마' 그리고 '딸'입니다

기립성저혈압인 첫째 다슬이(10, 가명)와 600g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아픔을 지닌 둘째 현이(2, 가명)를 돌보느라 자신은 늘 뒷전인 진경 씨(32, 가명). 최근에는 병세가 악화된 친정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으며 숨 쉴 틈도 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이제껏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으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32℃ 뜨거운 한낮에도 선풍기를 켜지 않는 집

한 층에 20가구가 위치해 있는 복도식 임대아파트 한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듯 문을 삐뚤히 열고 있는 한 집이 눈에 들어왔다. 더운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진경 씨. 한낮 기온이 32℃를 넘어서고 있지만 전기세를 아끼느라 선풍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다. 진경 씨의 알뜰정신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지급물품으로 받은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했고, 8시가 되면 아예 소등을 해버린다고. 최대한 절약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게 홀트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데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녀였다.

진경 씨는 아동의류나 물품은 지인에게 받아 쓰거나 굿will스토어(후원물품을 판매하는 곳),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고 육아전시장을 찾아 샘플로 나눠주는 육아용품도 꼼꼼히 챙기는 등 정보를 알뜰하게 챙겨 살림에 보탠다. 그도 그럴 것이 기초생활 수급비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환비와 월 임대료, 공과금으로 나가고 아동수당 15만 원은 둘째 현이의 약값으로 쓰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하던 부업도 친정어머니 간병을 위해 그만둔 상태였다.

아픔이 가득했던 유년시절, 외로움

진경 씨는 학교와 친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 눈 주위를 덮고 있는 혈관종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은 했지만 친구들의 놀림은 마음 속 큰 상처로 남았다. 그렇듯 외롭게 지내다 보니 누군가 정을 주면 자신도 모르게 바로 믿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진경 씨. 막 스무 살이 될 무렵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다슬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당시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통풍과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어 진경 씨는 부모에게 기대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야 하는 입장이었다.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다슬이를 낳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한 아이의 엄마로 진경 씨는 열심히 살았다. 20대는 '꽃다운 시절'이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10년 후, 다슬이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다정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났지만 곧 폭력이 시작되었다. 현이를 임신하고도 폭행을 당했다. 남자의 폭력을 피해 친척 집으로 피해 있던 중 끊임없이 구토가 이어져 병원에 가보니 임신중독이 심각한 상태였다. 임신 25주, 급하게 제왕절개로 현이를 낳았다. 600g 미숙아로 태어난 현이는 생후 4개월 동안 세 번의 눈 수술과 심장수술, 갑상선기능저하 치료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진경 씨가 가진 두 이름, 엄마 그리고 딸

첫째 다슬이는 기립성저혈압으로 갑작스레 혈압이 떨어져 쓰러질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다. 600g으로 태어나 많은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현이는 갑상선기능저하로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고 발달지체가 있어 돌이 지났지만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재활치료를 위해 2시간 남짓 떨어진 병원까지 오가다 보니 치료를 마



1 600g으로 태어나 어느덧 이만큼 자라난 현이.
2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다슬이는 꽃과 빵을 그렸다. 3 시소처럼 서로를 맞춰가며 힘껏 세상을 살아갈 세 가족.



4



5

4 틀어진 슬리퍼를 고무줄로 동여매 신고 있는 진경 씨.
5 잠투정으로 뒤척이는 동생을 토닥여주는 다솔이.

치고 오면 둘 다 녹초가 된다. 그래도 치료만이 현이를 낫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며 버텨낸다. 친정어머니도 치매와 당뇨, 고혈압과 우울증으로 치료 중이다. 어린 시절 많이도 미워했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병원 동행과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다.

진경 씨도 디스크와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다솔이와 현이의 엄마라는 이름이, 딸이라는 이름이 먼저기에 본인은 늘 뒷전이다.

나이보다 성숙해진 아이 다솔이의 꿈은 파티쉐

낮잠을 자던 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울음을 터트리자 다솔이가 입으로 '쉬~' 소리를 내며 동생 등을 토닥인다. 다솔이는 혼자 힘겹게 살아내는 엄마를 지켜보느라, 아픈 동생을 보살피느라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참고 아끼며 배려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버린 아이 같았다. 전학 온 지 3주 만에 학급 반장이 됐고, 학원이라고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방과 후 수업에만 참여했을 뿐인데 성적표에는 대부분이 '최고'였다.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던 다솔이가 어느 날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했다. 아마 고학년이 되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조금은 벅찼나 보다. 어렵게 말을 댄 다솔이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 아픈다는 진경 씨.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데 자신 때문에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건 아닌지... 폐스기보다는 엄마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딸이 안쓰럽다고 말하는 진경 씨다.

다솔이의 꿈은 맛있고 예쁜 빵을 만드는 파티쉐라고 한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만나게 되는 이웃집 언니들이 만들어준 빵에 반해 자신도 이렇게 빵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사랑을 나누는 엄마, 빵 굽는 딸

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한 달에 몇 만 원이라도 벌었지만 요즘에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경 씨는 디스크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백내장으로 한쪽 눈 시력이 0인 상태에 어린 아기가 돌봐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드물다.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 파티쉐가 된 다솔이가 맛있는 빵도 만들어오고 했으면 좋겠어요~”라 대답하는 진경 씨.

지금이라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고 싶지만 학비도 없고 어린 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하지만 현이가 어린이집에라도 다니게 되면 꼭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한다. 두 아이에게 안정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듯 보였다. 유명 프렌차이즈 중 ‘아빠가 만든 떡볶이 딸이 만든 튀김’이라는 데가 있다. 20년 후쯤, ‘사랑을 나누는 엄마 빵 굽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진경 씨와 다솔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싶다. **holt**

글 _ 김유진 · 후원팀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감동의 연주

— 홀트학교 예그리나 밤벨오케스트라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시작된 지 벌써 1년. 홀트학교 예그리나 밤벨오케스트라는 우려를 기대로, 가능성은 희망으로 바꿔 놓았다.

지능 70 이하, 음악 지수 무한대

홀트학교 강당에서는 ‘꿈을 키우는 음악캠프’ 연습이 한창이었다. 오늘 저녁(7월 30일) 열릴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바이올린 3번 그리고 5번! 자자 선생님을 봐야지~ 이때 플룻 들어가고...”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첼로, 바이올린, 플룻 등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부분부분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 배운 지 1년 된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훌륭해 보였다.

홀트학교는 정신지체 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다. 지적장애라고도 말하는 정신지체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 즉 지능검사에서 대략 70 이하의 소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홀트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자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또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의 소리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교육청 지원 오케스트라 중 유일한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산만하다는 아이들, 기초적 산수도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힘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good하고 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진경 씨에게는 양육비 월 20만 원 씩이 1년간 지원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예그리나 밤벨오케스트라는 홀트학교 임경애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지난 5년간 밤벨연주단을 운영했던 터라 한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고. 밤벨연주단을 맞고 있던 박에스터 선생님도 몇 개의 음만 연주하는 밤벨과 달리 모든 음을 알아야 하는 오케스트라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우선 오케스트라 외형을 꾸리자면 악기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한두 푼도 아닌 악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현악기 공방’ 김문태 대표님이 바이올린 6대와 활잡이 30개를 기증해주었고, 악기 수리 지원도 약속했다. 그리고 악기 지도는 광성나눔 앙상블 대표 이현주 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오케스트라가 정말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도움으로 2012년 4월, ‘예그리나(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밤벨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9명으로 시작한 단원은 지금은 2기까지 35명으로 증원되어 평일 방과 후와 매주 토요일 꼬박 2시간씩 연습에 매진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소리

“한 곡을 소화하는 데 2~3주 걸려요. 그나마도 편곡을 쉽게 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가능하죠. 게이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라 악보가 아닌 지휘를 보며 연주하고요.”

연주 시 지휘자 박에스터 선생님이 손가락을 숫자로 표현하며 ‘삼’ ‘오’를 외쳤던 이유가 이해되었다. 그게 ‘미’고 ‘솔’이었던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면 지금은 ‘기적’에 가깝다고. 불가능하며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저조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밤벨오케스트라 때문에 홀트학교로 전학하려는 문의가 올 정도며, 단원들도 처음에는 연습 도중 화를 내거나, 울거나, 나가버리는 등 집중이 어렵더니 점차 10분, 20분 앉아서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다가 이제는 ‘음악의 재미’를 느끼는 경지에 이르렀다. 장애인날에 펼쳐진 ‘제33회 장애인 인식 개선행사’ ‘경기도 제8회 청소년 관악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고양시 노인의 날’ ‘고양 학생 예능 발표회’ ‘대전 JTBC 제5회 장애학생 쿤쿠르’에서는 동상을 받았다. 수상과 초청 연주로 자신감을 얻은 단원들은 이제 스스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장애를 이해해주지 못하다 보니 일반 학교에서 칼부림당할 만큼 따돌림을 받던 아이가 있었어요. 첫 오케스트라 참석 날, 한참을 가만히 악기만 지켜보더니 첼로를 잡고 앉아 단원들 틈에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연주회 때 아버지가 아들의 연주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그리나 밤벨오케스트라가 가져다준 기적은 한 아이만이 아니었다. 영일(12, 초5)이는 게이름을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단원, “음악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미소에 행복이 묻어났다. 게이름을 볼 줄 모르지만 연주할 때만은 리듬감이 넘치는 성원(10, 초2)



(좌측부터) 영일(12)과 성원(10).

이도 “바이올린 연주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음악은 제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라고 말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진실(15, 중2)이는 국내 70명, 국외 30명을 선발하는 ‘평창 뮤직페스티벌’ 단원으로 뽑힐 만큼 1년간 가장 눈부신 성장을 보인 학생이다. “처음에는 뽁뽁 소리가 나고 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주실 때마다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음악 시간이 즐거워요”라는 진실이는 피아노에 맞춰 무리 없이 한 곡을 솔로로 연주하는 등 클라리넷 사랑에 푹 빠져 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이죠.

“음악만큼 좋은 치료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습을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집중력도 전보다 좋아졌어요. 악보를 다 볼 줄 아는 건 아닌데 순서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신기해요.”

박에스터 선생님은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주하는 아이들이 대견하다며 앞으로 행복하게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주를 다닐 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부족한 사회 모습을 목격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모든 이에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 예그리나 밤벨오케스트라는 홀트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오케스트라 ‘꿈을 이루는 만남’ 연주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연주할 수 있는 무대와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연주하고 싶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감동의 연주를 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예그리나. 단원들의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 지원으로 그럴싸한 음악실 겸 연습실이 공사 중이다. 체육관 한편에서 연습했던 단원들, 새 연습실이

공개될 때 어떤 표정일까?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과 선생님들, 단원들 모두 눈물을 흘려요.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곤 박수 쳐주시고 ‘감동받았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이들은 힘과 용기를 얻죠.”

음악의 힘은 위대한 것 같다. 악기를 배우면서 달라진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은 최고의 치료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게 되면서 작곡, 지휘 공부를 더 하게 된 박에스터 선생님, 잘한다 박수치며 응원해주는 홀트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님,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시는 봉사자님과 후원자님들이 계셨기에 단원들이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홀트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번 연주회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연주할 예정이라니 더 많은 기적들이 탄생할 듯 보인다. 현재의 2기를 넘어 3기, 4기 단원들이 이어져 예그리나가 발전하기를,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할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예그리나 밤벨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Holt

글 _ 박혜연 · 홍보림

자원봉사자 인터뷰



(좌측부터) 고현경, 박지혜, 유대건, 서기영, 홍한아, 이한나, 김희용, 황진선

음악치료 수업 때부터 홀트학교와 인연을 가졌으며, 오케스트라 피아노를 맡아달라는 지휘자 선생님의 부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기 배우는 것도 어려울 텐데 잘 따라 와주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함께할 수 있어 오히려 제가 고맙고 감사해요.

- 고현경 자원봉사자(피아노)

국내 입양가족과 국외 입양인이 만났다 홈스테이 1박 2일!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2회 해외입양인 모국연수 "Happy trail in Korea"에 참가한 Rachel, Kimberly 자매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언어 장벽도 문화장벽도 허문 입양. 두 입양가족의 유쾌한 하룻밤 동거(?)를 따라가 보았다.

글 _ 김은희 · 홍보팀

홈스테이 가족

뒤늦게 자식 복이 터진 신용운(51), 김은자(45) 부부입니다. 대학생인 첫째 딸 소미(21) 밑으로 소연(7), 흥기(6), 소율이(3)를 입양. 늦둥이 재롱을 낳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홀트한사랑회(홀트입양가족모임)를 통해 벌써 5년째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요. 훗날 저희 아이들이 커서 형, 누나들과 보낸 즐거운 추억을 벗 삼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아 매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 아는 형, 누나가 많다면 든든하겠죠?



홈스테이 참가자

미국 시카고에서 온 Rachel(김영순)과 Kimberly(김영미) 자매예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저희는 29세 쌍둥이예요. 현재 상담교사, 청소년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남편들이 적극 지원해서 홀트모국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죠. 한국은 첫 방문이고 지금껏 배운 태권도, 요리, 한국어 모든 프로그램이 훌륭했어요. 오늘 홈스테이도 기대돼요. 사랑하는 엄마(양어머니)가 돌아셨는데 만약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행복해하셨을 것 같아요.

첫째 날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안타깝게 비가 와서 홈스테이 첫날 첫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 만남 기념으로 기념촬영! Rachel과 Kimberly는 박물관 전시물을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어린 세 아이들이 오래 버티기는 무리인 장소인지 살짝 찡찡대기 시작. Rachel과 Kimberly도 태권도 수업으로 좀 피곤한 터라 아쉽지만 박물관 관람은 끝!



한국 정서가 담긴 저녁 식사

출출한 배를 채워야겠죠. 김은자 씨가 몸살 때문에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며 한식을 대접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와 정성스런 한국음식에 반하며 Rachel과 Kimberly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내일로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선물도 교환하니 어느덧 홈스테이 첫 날이 끝났네요! 이제는 코 잠 잘 시간, 모두 행복한 꿈 꾸세요!



둘째 날



아침산책과 식사 그리고 홈스테이 가정의 참석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명동으로 향했어요. Rachel과 Kimberly가 조카들에게 줄 한복을 사고 싶어 쇼핑에 나섰어요. 아쉽지만 벌써 홈스테이 종료시간이 되어 호텔로 돌아갔답니다.

홈스테이 참가 후기

한국에서 입양을 꺼렸다고 들었는데 셋을 입양한데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가족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잔치와 입양자녀가 구분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행복한 그 모습에 '우리를 입양했던 양부모님과 가족들 또한 이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양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빠와 언니, 오빠가 더 그리워지네요. 홈스테이 가정의 베풀어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같은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라 더욱 편했어요. 특히 소연이는 오래 생각할 것 같아요. 귀찮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여서 안으로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것 같네요. 소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훗날 입양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체를 갖고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라 정말 훌륭하게 자랄 것 같아요! "소연아 나중에 커서 언니들 보러 꼭 미국에 놀러와"



1 생후 6개월 무렵 가족과 함께.
2 대학졸업식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눔과 행복이 덤으로 쏟아지는 홀트나눔가게 & 나눔제품

어디 있지? '홀트나눔가게'

합정동 입소문 자자한 '홀트가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사옥에 위치한 '홀트가게'는 주변 직장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장소다. 매주 어떤 물품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곳! 수익금은 위탁아동 양육비와 의료비, 빈곤가정 아동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 후원물품 : 아동 의류 및 용품, 성인 의류 및 생활용품 외
- 운영시간 : 월~금 10:00~16:00
- 문의 : 02-331-7072



홀트가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홀트일산복지타운 '홀트나눔가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 홀트일산복지타운 내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2층에 자리 잡은 '홀트나눔가게'에는 먼 거리를 찾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직원과 봉사자들이 있다. 수익금은 이곳 생활자의 의료비 및 재활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된다.

- 후원물품 : 성인 의류, 신발, 생활용품 외
- 운영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6:00
- 문의 : 031-914-6631



홀트나눔가게

복적복적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양시장장애인복지관 '나눔가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9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1층 로비에 위치한 나눔가게는 스포츠센터 이용자와 고양시장장애인복지관 이용자로 늘 북적인다. 그 이유는 수익금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 좋은 일에 함께하려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복적복적 함께하길.

- 후원물품 : 의류, 생활용품, 장난감, 신발, 건강식품(비타민, 칼슘제) 등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 문의 : 031-929-1473



나눔가게

홀트나눔가게는 후원물품과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 노크해주세요!

나눔도 실천하고 필요한 물품도 얻어가는 특별한 곳. 착한 후원기업과 착한 후원자가 '나눔'을 키워드로 만나는 '홀트나눔가게', 장애인보조작업장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유기농·천연식품이 있는 '나눔제품',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내에게는 '행복'을 주는 쇼핑! 우리 동네 홀트나눔가게 & 나눔제품을 소개합니다.

콩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만든 수제, '건강한 두부·콩물'



고양보호작업장에서는 국내산 콩을 근로장애인이 한 알 한 알 정성껏 씻고 다듬어 만든 두부(동절기)와 콩물(하절기)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고소한 콩맛 소문에 한정수량으로 제작하다 보니 금방 동이 나는 인기 상품이다.

- 품목 : 건강한 콩물(7월~9월 중순) / 건강한 두부(콩물 생산 이외 기간)
- 판매처 :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1층 로비
- 판매시간 : 오후 3시 이후부터
- 구입방법 : 현장구매 및 경기도 탄현지역은 배달 가능
- 가격 : 두부 3,000원 / 콩물 3,000원(900ml) / 6,000원(1,800ml)
- 문의 : 031-929-1564 고양보호작업장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천연비누 & 천연오일 & 모기퇴치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마을기업 '천연애(愛)'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저소득가정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천연제품 기술지원센터를 구축, 천연제품 제작과 판매, 연구를 통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합성화학물질 NO, 어린이이 사용 YES!

- 품목 : 천연비누, 천연오일, 천연립밤, 모기퇴치제 등
- 판매처 : 홀트수영복지관 내 판매대, 지역 구분 없이 배송(택배) 가능
- 가격 : 비누 4,000원 / 립밤 3,000~4,000원 / 모기퇴치제 젤형 3,000원, 스프레이형 6,000원 / 오일 1만 3,000원 / 돌·결혼 등 선물용 세트 8,000원부터 (대량 주문 시 할인 가능)
- 문의 : 051-760-3600

6일간 정성으로 키운 '천연유기항 콩나물' & 수제품 '도자기'



홀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콩나물은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천연유기항을 이용했으며, 촉진제는 사용하지 않고 6일간 정성들여 키운 것으로 맛과 영양이 좋고, 신선함이 오래 간다. 더불어 장식 효과가 높은 도자기 그릇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 품목 : 천연유기항 콩나물, 도자기(머그컵, 그릇, 접시, 화분, 화병), 수예 제품
- 판매처 : 홀트보호작업장 내
- 가격 : 콩나물 300g 1,500원, 4kg 1box 1만 6,000원 / 도자기 1만 원~2만 원
- 문의 : 031-914-6629 (www.holtrehab.or.kr)

느낌 아니까~ '홀트나눔상품'



● 사회공헌 ●

(주)아미코스메틱 희망 나눔 화장품 전달



코스메슈티컬 전문화장품 회사인 (주)아미코스메틱(대표:이경록)은 소외계층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8월 8일 1억 6,000만 원 상당의 희망 나눔 화장품을 우리회에 전달했다.

고대구로병원, 지오크리에이티브 우리회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우리회 김대열 회장과 고대구로병원 김우영 원장, 지오크리에이티브 김진영 대표는 7월 18일, 고대구로병원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두상기형 환아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000만 원 후원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견본주택에서 6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따뜻한 기부'를 통해 2,000만 원을 우리회에 기부해주었다.

이마트 건물물 협력 기업, 기부금 전달



이마트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건물물 기업 11개 기업이 6월 13일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부

금 1,000만 원을 우리회에 전달했다. 이들 기업은 2011년부터 정기적인 나눔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약 6,000여만 원을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기부해왔다.

● 본부 ●

홀트장학생, 캄보디아 봉사



홀트장학생 및 직원 자녀를 포함한 9명은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홀트드림센터 책갈상 페인트칠과 환경정비, 음악, 체육, 미술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입양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우리가족 해피 비타민' 열어

입양가정지원센터는 7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과 아동미술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그룹 '인피니트' 살화한 10톤 기부

아이들그룹 '인피니트'는 콘서트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팬들이 보내온 응원용 살화한 10톤을 우리회에 기부했다.

2013 꿈과희망지원, 신나는 여름방학 리더십 캠프 열려



2013 신나는 여름방학 리더십 캠프가 꿈동이 23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름

다운 꿈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1억씩 장학금을 후원해주시는 선 홍보대사, 백주년기념교회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캠프를 협찬해주신 릴선, 카길과 Lexfarm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2회 해외 입양인 모국연수 수료식 가져



제22회 해외 입양인 모국연수 'Happy trail in Korea, 2013'이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미국,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등의 총 5개국에서 17명의 성년 입양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주신 마포구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해외원조사업차 몽골 방문



김대열 회장과 복지지원팀 이필영 사회복지사는 6월 23~27일 일정으로 해외원조사업과 관련, 몽골 울란바토르 시와 빈민가, 유아원, Son ginokhairkhan 구청, UNICEF, Nation Children Sanatorium(국립아동병원) 등을 돌아보며 지원과 협력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돌아왔다.

선 홍보대사 특강



우리회 홍보대사이자 기부천사로 알려진 선 홍보대사가 6월 11일 우리회 직원들을 위해 '지금 이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동아닷컴 스타 도네이션 후원

동아닷컴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16명 스타들의 소장품으로 스타 도네이션을 진행, 337만 9,000원을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주었다.

'정용화 갤러리' 분유 300캔 후원

그림 '씨앤블루'의 보컬로 활동 중인 정용화의 생일(6월 22일)을 맞아 팬클럽 '정용화갤러리' 회원들이 분유 300캔을 기부했다.

F.B.I 재능기부

재능기부를 펼치는 바리스타들이 모인 F.B.I (Fun Barista of Impress)는 6월 22일 논현동 The beaner에서 일일카페를 열고 267만 원의 기부금을 우리회에 전달해주었다.

제10회 홀트한사랑회 입양가족 캠프 및 제4회 유소년캠프 열려



제10회 전국 홀트한사랑회 입양가족 캠프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2개 팀으로 나누어 충북 단양 소재 느티나무캠핑장에서 개최되었다. 58가정 207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가족신문 만들기, 성인입양인 사례, 분임토의, 부모교육, 장터(알뜰장터·먹을거리), 유소년 래프팅, 미니운동회,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됐다.

2013년 모국방문단 방문

미국 Holt-Bethany 입양가족 방문을 시작으로 모국방문단 방문이 여름내 이어졌다. 입양인과 가족 317명은 우리회를 방문해 입양 관련 상담과 친가족·위탁모 상봉을 했으며, 시설 및 연

고지 방문 등과 전국 여러 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2013년 직원 워크숍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화합과 친목 도모, 소통을 위한 워크숍이 5월 31일 청려수련원에서 열렸다.

정년퇴임식



이춘근 실장님과 서경숙 광주소장님의 정년퇴임식이 3월 25일 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춘근 실장님은 31년을, 서경숙 소장님은 26년을 소외된 아동과 이웃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홀트인으로 흘린 두 분의 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방사무소 ●

강원사무소, 나눔 헌판 전달 및 특별한 기부



홀트강원사무소는 7월 9일 아동 돕기 후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준 명동본가달갈비(대표:김순자)에 이웃 나눔 헌판을 전달했다. 또한 이성철, 이숙 부부는 가슴으로 낳은 셋째 아이 이루리의 첫 생일을 맞아 축하금 100만 원을 후원했다.

대구사무소, 한사랑회 대구지부 여름캠프

입양가족 자조모임 한사랑회 대구지부 가족들이 8월 5일~6일, 양일간 여름캠프를 열고 부모교육과 입양 정보를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다.

인천사무소, 예비 입양부모교육 실시



인천사무소는 7월 11일 인천·부천지역 20가정(38명) 예비 양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을 실시, '입양 정책과 입양아동의 이해' 등 강의와 양부모님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부산사무소, 예비 입양부모교육 개최



부산사무소는 6월 13일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개최해 입양과 입양부모 역할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진행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Maersk Line 후원금 전달식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국 머스크는 7월 16일 일산타운을 방문, 덴마크 Maersk재단 이사장인 Ms. Ane Maersk Mc-Kinney Uggle 여사의 개인적 후원금 \$50,000(5,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한국머스크의 CEO Brian Noe Kristensen이 직접 대표로 참석했고,

그간 병상 중에 있었던 말리 홀트 이사장도 참석해 훈훈한 전달식을 가졌다.

버다 홀트 할머니를 추모하며

'버다 홀트' 할머니의 13주기 추모예배가 7월 31일 홀트교회에서 열렸다.

● 홀트학교 ●

홀트학교 뉴시스헬스 힐링 승마교실



'홀트학교 뉴시스헬스 힐링 승마교실'이 7월 15일 열렸다. '힐링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과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여가 생활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효과 있는 치료교육 활동이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11회 수원시장배 장애인수영대회 참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서는 6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새천년 수영장장에서 제11회 수원시장배 장애인 수영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김경민 외 14명이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청소년자원봉사국토대장정 개최

제9회 청소년자원봉사국토대장정을 7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 24km 구간 도보행단과 자



원봉사활동을 펼쳐 인내심과 배려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종합사회복지관, 한국아쿠르트 부산지점 '어름 맞이 어르신 삼계탕 대접' 후원



한국아쿠르트 부산지점은 7월 18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대접 행사를 열어 220명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별노인 마음치료 프로그램



사별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사별 상실감을 완화하고 사별 노인들 간의 공동체를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수영사랑회 주최로 6월 1일 수영구청 구민홀에서 열렸다.

● 미혼모자시설 ●

사랑들, 개원 4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 실시



개원 4주년을 맞이하는 사랑들은 7월 17일 기념식을 갖고 입소자들과 함께 외식과 문화체험 행사 등을 가졌다.

아침들, 소롭티미스트 뉴대전클럽 장학금 전달



7월 11일(목) 소롭티미스트 뉴대전클럽 김소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아침들을 방문,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3명의 산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전클로버

양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족욕 체험과 동화사 계곡 탐방을 진행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마포구성평등기금사업 '우아한 성'

마포구 지원 사업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주체 의식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용자 위기 가족캠프

대구구치소 수용자 가족 5가족을 대상으로 6월 18일 가족캠프를 진행, 단절된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가족의 소중함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 가족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두근두근 우리들의 황금기"



부부의 갱년기 극복을 돕기 위한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이 하남시 40대 중반~60대 부부 30명을 대상으로 6월 20~21일까지 열렸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뷰티 엔젤 스쿨'



'체험을 통해 배우는 다문화 여성의 당당한 아름다움 찾기'라는 슬로건 아래 ㈜아모레퍼시픽의 엔젤 봉사자들이 7월 22일, 24일 양일간 다문화여성들과 1:1 매칭, 여름철 부관리법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제공했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한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 여행'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행복한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7월 20일 저소득 다문화가정 3가정에 여행이용권으로 지원, 거제와 해금강 일대, 외도와 몽골해수욕장 등에서 가족만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제공했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및 합동 돌잔치

결혼이민자 5쌍의 합동결혼식이 춘천시와 홀트



강원후원회 지원으로 6월 12일 강원웨딩문화센터에서 열렸다. 21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4명을 위한 합동 돌잔치를 열었다.

홀트심리상담센터

8월 9일 김영호 교수님을 초빙해 남구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담당자와 함께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교육을 개최했다.

● 전주영아원 ●

신나는 여름캠프



영아원 아동 13명이 8월 7일 물 테마파크로 신나는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원아들은 물놀이 체험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원내 캠프

여름을 맞아 원아들은 7월 19일~20일 원내 캠프에 참여해 물놀이와 미술공예, 영화관람 등을 즐겼다.

홀트어린이집

썸머 쿨 페스티벌 물축제를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원내 수영장에서 열었다.

중동어린이집, 숲체험 부모 참여 수업

어린반(만 4세)어린이들은 한 달 동안 '나무'를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친 후 6월 22일 부모와 함께 숲 체험을 떠나 나무에 대해 발표하고 나뭇잎 염색으로 에코백을 만들기도 했다.

● 전국후원회 ●

서울후원회, 김경희 전국후원회회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주최로 6월 28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 제2회 행복 나눔인 시상식에서 김경희 전국후원회장이 나눔 실천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원후원회, 강원여성대회 참가 입양 홍보

홀트강원후원회(회장:신명숙)는 7월 2일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18회 강원여성대회에 참가, 입양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후원회, 미국 패밀리투어팀 오찬 초대



대전후원회(회장:최진실)에서는 6월 30일 대전을 방문한 미국 모국방문단 패밀리투어팀(64명)을 오찬에 초대해 모국의 정을 나누었다.

날씨도 보고 기부도 하는 착한 어플 '홀트날씨' 탄생!



'홀트날씨' 어플 설치 안내 앱스토어·T스토어·Play스토어에서 '홀트날씨' 검색 ▶ 아이콘 선택 ▶ 받기 또는 설치 클릭 ▶ 설치 완료 ▶ 스마트폰에서 '홀트날씨' 어플 실행 ▶ 지역 선택

홀트날씨 어플 메뉴

- 1 시간**: 현재 시각을 보여줍니다.
- 2 아기 모습**: 사랑스러운 홀트 아기들이 날씨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 3 시간별 예보**: 오늘의 날씨가 시간별로 나옵니다.
- 4 주간 예보**: 6일간의 날씨를 한 눈에 보여줍니다.
- 5 기온**: 현재 기온을 보여줍니다.
- 6 홀트 소개**: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 7 후원하기**: ARS(060-700-1006)으로 자동 연결되며 한 번에 2,000원이 자동 후원됩니다.
- 8 설정**: 날씨 정보가 필요한 곳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C2D Games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 후원사업이 궁금하세요?] 스마트폰으로도 후원 가능한 거 아시죠?

- 국내후원사업** 요보호아동보호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가정아동 후원 및 장학사업, 장애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지원
- 해외사업** 캄보디아 이주민 정착촌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 보건, 의료지원
- 후원방법**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후원, 결연후원
- 후원참여** www.holt.or.kr · 1899-0923 · ARS 060-700-1006



2013
홀트 후원자님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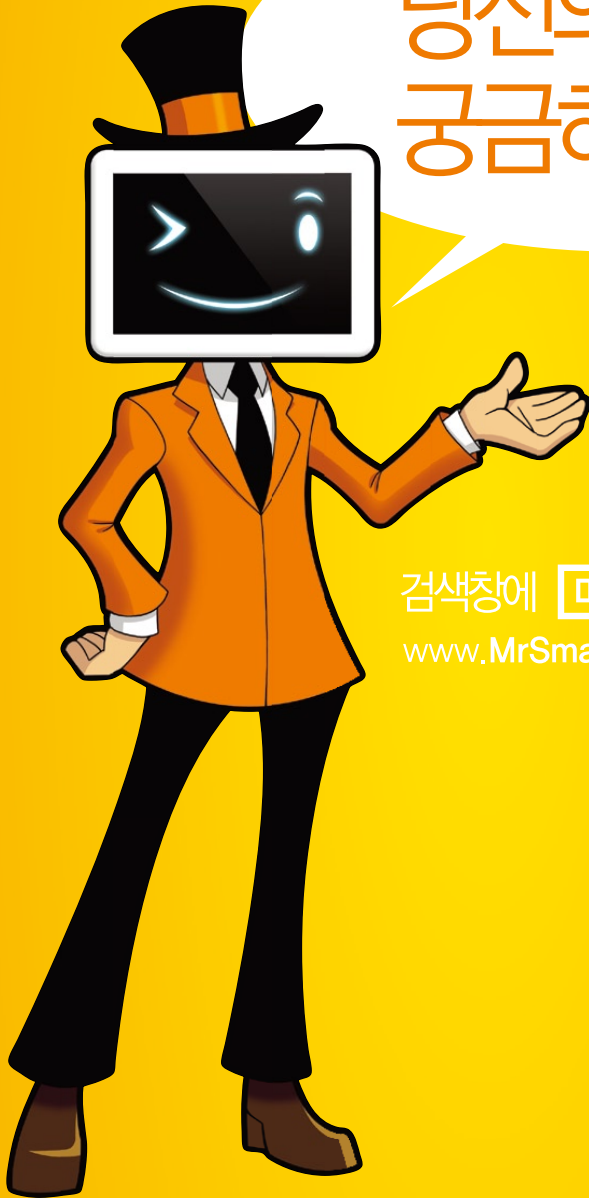


낙엽이 지는 늦가을, 2013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후원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행사**: 2013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 대축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 대방역(1호선) 3번 출구)
- **일시**: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8시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세요?



검색창에 **미스터 스마트** 를 쳐보세요!
www.MrSmart.co.kr